



조지 오웰 원작
오뒤르 지음
강동혁 옮김
염승숙 해설

사마계절

홈페이지 www.sakyejul.net

블로그 blog.naver.com/skjmail 페이스북 [facebook.com/sakyejul](https://www.facebook.com/sakyejul)

트위터 twitter.com/sakyejul 인스타그램 [instagram.com/sakyejul_teen](https://www.instagram.com/sakyejul_teen)

동물농장

가이드북

사마계절

목차

조지 오웰 소개	2
동물 농장 인물 관계도	4
국어 교사가 바라본 『동물 농장』 & 독서 후 질문	6
역사 교사가 바라본 『동물 농장』 & 독서 후 질문	10
함께 읽으면 좋은 고전	14





조지 오웰

George Orwell 1903-1950

조지 오웰은 영미 문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세계적인 작가이다. 그가 첫 책을 낸 뒤로도 반 세기가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조지 오웰의 작품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다. 본명 에릭 아서 블레어를 지우고, 영국에서 흔하게 쓰이는 이름 중 하나인 ‘조지’와 부모님 댁 근처에 위치한 ‘오웰’ 강에서 따와 조지 오웰이라는 필명으로 작가의 길을 걷게 된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영국령 인도 행정부 소속 공무원인 아버지를 둔 그는 인도 벵골에서 태어났다. 이후 가족들과 함께 영국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는 뛰어난 재능 덕에 학비를 면제받아 상류 계급만이 다니는 이튼 칼리지에 진학했다. 그러나 상류층의 심한 차별과 감당할 수 없는 학비에 염세를 느낀 조지 오웰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인도 제국 경찰 시험에 응시했다. 아버지가 근무하였던 인도, 버마(오늘날 미얀마) 등 아시아에서 근무를 이어 온 그는 약 오 년의 시간 동안 성실히 경찰로 일했지만, 여전히 끊이지 않는 영국인들의 위선적인 제국주의에 환멸을 느꼈다.

결국 영국으로 다시 돌아온 그는 경찰을 그만두고, 파리 빈민가와 런던 부랑자들이 기거하는 거리들을 전전하며 하층민의 밑바닥 생활을 몸소 경험했다. 여러 잡지에 글을 써 오던 그는 몇

년 후, 필명 조지 오웰로 첫 작품 『파리와 런던 거리의 성자들』을 발표했다. 실제의 사건, 현장을 기록하는 ‘르포르타주’ 형식인 이 작품을 시작으로 그는 미얀마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영국 제국주의를 고발하는 소설 『버마 시절』도 연달아 써냈다. 그런가 하면 스페인 내전 발발 당시, 파시즘에 맞서기 위해 스페인군으로 참전하였다. 그러나 심한 부상을 당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스페인 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오명을 쓰고 배신자 신세가 되어 스페인에서 쫓기듯 달아나게 된다. 이후 스페인 공산당의 악행을 낱알이 파헤치는 역설적인 제목의 작품 『카탈로니아 찬가』를 써냈다.

이렇듯 조지 오웰은 본인이 실제 경험한 사회적 문제에서 착안한 글을 쓰며 정치 성향이 짙게 묻은 작가로 자리매김했으나, 빈민 생활 및 전쟁 참여 등 잇따른 악조건에 결핵 증세가 심해져 모로코에서 요양 생활을 하며 잠시 글쓰기와 멀어졌다. 이후 영국 BBC 라디오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신문사에서 문학과 정치 칼럼 편집장으로 일을 하던 중, 그는 현시대 사람들의 입에도 자주 오르내리는 희대의 명작 『동물 농장』을 쓰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영국에서는 연합국인 소련에 대한 비판을 일면 멈추는 경향이 강했지만, 조지 오웰은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독재주의자 스탈린을 소설 속 돼지 나폴레옹에 빗대어, 유토피아를 꿈꾸는 권력 계급의 몰락에 대해 풍자하며 정치적인 글쓰기를 강행해 나갔다.

허나 권력의 모순을 비판해 온 조지 오웰 작품의 결말은 대부분 피지배층의 격렬한 저항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는 권력이 팽배하고, 역설적인 계급 사회가 반복되어 이어져 오는 시대를 향한 의문. 즉,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이 『동물 농장』을 비롯한 작품을 읽고 시대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 사고해 나가기를 바라는 아니었을까. 때로는 유머러스한 우화로, 때로는 현실을 첨예하게 직시한 르포르타주로 수많은 작품을 써 온 조지 오웰, 그는 『동물 농장』에 이어 약 80년 뒤의 미래를 예견한 『1984』를 세상에 내놓으며 작가로서의 명성을 이어 갔다. 그러나 그 명성도 잠시, 오랫동안 앓은 결핵이 악화하여 1950년 이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동물 농장 인물 관계도

제1차 세계 대전이 지속되던 시기, 러시아의 민중들은 고통스럽고 빈곤한 일상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니콜라이 2세를 몰아내는 혁명을 일으킨다. 그 역사적 상황을 배경 삼아 『동물 농장』이 집필되었다.
(* 괄호 안의 이름은 등장인물의 모델이 된 실제 인물이다.)



매너 농장



존스(러시아 니콜라이 황제 2세)
매너 농장의 농장주. 농장 경영을 잘 해내던 인물이지만, 동물들의 혁명 이후 술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다.



프레더릭(아돌프 히틀러)
매너 농장 이웃 '핀치필드 농장'의 농장주. 동물들이 세운 풍차를 파괴하려 동물 농장으로 들이닥친다.



필킹턴(윈스턴 처칠)
매너 농장 이웃에 '폭스우드 농장'의 농장주. 매너 농장이 돌아오게끔 만든 나폴레옹과 손을 잡는다.



동물 농장



메이저 영감(마르크스)
동물 농장의 왕이나 다름없던 존재. 동물들에게 혁명을 일깨우고 평화롭게 숨을 거둔다.



나폴레옹(스탈린)
메이저 영감의 뜻을 따라 혁명에 가담하지만, 스노볼과의 권력 투쟁 뒤 독재자로 군림한다.



스노볼(트로츠키)
나폴레옹과 함께 혁명을 일으킨 뛰어난 연설가. 그러나 농장에서 쫓겨나며 이상은 실현되지 못한다.



스퀄러
나폴레옹의 충신. 동물들이 나폴레옹을 따르게 만드려 부단히 애쓰는 기회주의자.

지배

혁명

지배

피지배



아홉 마리 개
비밀 경찰. 나폴레옹이 길러 냈으며 다른 동물들에게 잔인한 폭력을 행사한다.



복서
프롤레타리아. 동물주의의 이상을 꿈꾸며 순수하고 명청스러우리만치 혁명에 열과 성의를 다한다.



동물 농장의 동물들



국어 교사가 바라본 『동물 농장』

언어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김영희(대평고등학교 교사)

『동물 농장』은 조지 오웰이 1945년에 발표한 정치우화이다. 이 책은 소련 스탈린 정권에서 일어난 부정과 부패, 모순을 폭로한다. 학생들에게 『동물 농장』을 권하면 “80년 전 소설을 왜 읽어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섭섭하지만) 틀린 말은 아닌 게 그러한 콘텐츠는 21세기에 훨씬 많이 생산,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권유의 이유를 ‘사회 문제를 고발하는 수작’에서만 찾을 필요는 없을 터다. 그렇다면, 오늘날 독자가 『동물 농장』을 읽으며 얻을 수 있는 바는 무엇일까?

눈을 뜨게 하는 언어, 눈을 가리는 언어

매너 농장이 동물 농장으로 바뀌고, 동물 농장이 다시 매너 농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는 모두 언어의 강력한 힘이 개입한다.

매너 농장의 공기는 메이저 영감의 연설로 뒤바뀐다. “영국의 그 어떤 동물도 자유롭지 않소. 동물의 삶이란 비참한 노예의 삶이요. 이 점은 명백한 진실이요.”라는 말을 들은 동물들은 “그 여느 때보다 흥분”하며 몇 분 만에 메이저 영감이 제안한 혁명의 노래 전체를 외운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목소리를 높여 노래를 부른다. 그들은 “메이저 영감의 연설로 인해, 전적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게” 되었고 결국, 봉기를 일으켜 인간들을 몰아낸다. “살아생전에 그 반란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조차 못” 했던 동물들을 움직인 것은 메이저 영감의 연설이다. 그런 점에서 언어는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동물 농장의 몰락 또한 언어에서 기인한다. 나폴레옹은 경쟁자 스노볼을 몰아낸 뒤 언어를 오염시키는 방식으로 동물들의 눈을 가리기 시작한다. 나폴레옹의 조직적이고 체

계적인 스노볼을 향한 비방 때문에 동물 농장에서는 “무엇이든 잘못되면 스노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하나의 문화가 된다. 본래 스노볼은 동물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권력을 나누는 일에 집중하던 인물이었으나, 어느새 동물들은 “스노볼이 주변 공기에 스며들어 온갖 위협으로 그들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라고 믿게 되었다. 나폴레옹은 동물들에게 자신을 “우리의 지도자, 나폴레옹 동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하며 “모든 동물의 아버지”나 “인류의 공포” 같은 호칭으로 수식되길 즐긴다. 그러한 분위기에 익숙해진 동물들은 중국에는 “돼지와 다른 동물이 길에서 마주치면 다른 동물이 비켜서야 한다는 규칙”까지 문제의식 없이 수용하는 처지에 이른다. 혁명의 시기에 매너 농장 간판을 동물 농장으로 교체할 때에는 모든 동물이 평등했으나 점차 돼지들은 농장에서 권력 집단으로 군림한다. 그들은 동물들이 불만을 품겠다 싶은 시점에는 노래와 연설의 횡수를 늘리고, 그러면 동물들은 “아주 잠깐이라도 굶주린 배를” 잊고 행사를 즐기곤 한다.

돼지들은 동물주의의 원칙 일곱 계명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조금씩 고치고, 이내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라는 구호를 “네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더 좋다”로 수정한다. 동물들은 ‘현재’ 벽에 쓰인 글귀가 무엇인가에만 집중하며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다. 결국 동물들이 주인이라는 의미였던 동물 농장이 다시 매너 농장으로 돌아가고, 돼지들이 두 다리로 걸으며 인간들과 교류를 시작해도 다른 동물들의 눈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이상해 보이지” 않게 되어 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에 기대를 품을 수 있는 이유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작품을 써냈다는 점에서 조지 오웰을 ‘사회주의에 반하는 인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웰은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사회주의자라 칭했다고 한다. 그는 사회주의 자체가 악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권력자들이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부패와 모순을 비판하려고 『동물 농장』을 썼다. 어떤 이념에 기반한 사회이건 교묘하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구별하며 이득을 취하는 존재들이 있기 마련이니 민중들은 각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작가는 독자들에게 혁명이라는 특정한 순간에만 각성할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영역에 촉을 열어 두는 자세가 중요하다 말을 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

인생을 걸었던 이념을 향해 예리한 비판의 말을 던지겠다는 작가의 결의는 분명 많은 이의 변화를 일으켰다. 이 작품을 읽은 독자들이라면 필히 ‘현재’를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려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동물 농장』에 등장한 우둔하고 불쌍한 동물들같이 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권력자들이 구사하는 오염된 언어를 향해 예리한 안테나를 세워야 한다. 이것이 악인들에게 언어로 대적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동물 농장』의 성과일 터다. 그런 점에서 나는 언어의 힘을 믿는다.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은 실패했으며, 병약했던 오웰은 이른 나이에 눈을 감지만, 『동물 농장』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시민의 각성을 촉구하는 작품이 되었다.

그런 점에서 그래픽 노블 『동물 농장』을 읽을 때에는 구도와 색감에 초점을 두어 읽어 보길 권한다. 색채와 화풍은 그림 작가가 구사하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21세기의 작가가 왜 20세기의 작품을 각색하였을지, 작품에 담아내려 한 생각은 무엇이었을지 그림을 ‘읽어’ 가며 파악해 보길 바란다. ‘언어의 힘’을 담아낼 수 있는 수단이 말과 글 외에도 아주 많고, 이렇게 많은 언어가 이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곳곳에서 각각의 방식으로 분투하고 있다는 깨달음은 여러분에게 큰 용기가 될 것이다.

김영희

전국국어교사모임 독서교육분과 ‘물꼬방’, 경기도중등독서교육연구회에서 활동하는 국어 교사. 공부 모임 만들기를 즐긴다. 『함께 읽기는 힘이 세다 2』, 『우리들의 랜선 독서 수업』을 함께 썼다.



국어 교사가 전하는 『동물 농장』 독서 후 질문

- ① 『동물 농장』을 읽고 공감한 부분, 깊은 생각을 일으킨 부분을 같이 공유해 보자.
- ② 돼지들이 언어를 활용하여 동물들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려 한 장면들을 찾아보자.
- ③ 만약 동물들이 어떤 시점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비판을 했다면 『동물 농장』의 운명이 달라졌을까?
- ④ 현대 사회의 ‘오염된 언어’는 무엇일까?
- ⑤ ‘오염된 언어’에 휘둘리지 않는 깨어 있는 시민이 되기 위한 수칙들을 만들어 보자.
- ⑥ 『동물 농장』이 시공간을 뛰어넘어 꾸준히 읽히는 고전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 ⑦ 조지 오웰과 같이 사회의 발전을 위해 비판을 한 사람의 사례를 찾아보자.
- ⑧ 그림의 특성에 초점을 두고 『동물 농장』을 읽어 보자. 그림 작가가 담아내고자 한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 시대 삶의 길잡이, 고전

권은재(풍생고등학교 교사)

“동물 농장을 아시나요?”라는 질문을 하면, 우리 아이들은 당연히 안다는 듯이 대답한다. “일요일 아침에 자주 봐요!”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당신도 어쩌면 그리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부터 이야기하고자 하는 『동물 농장』은 조지 오웰의 대표작으로 스탈린 독재 체제를 강도 높게 비판한 풍자소설이다.

『동물 농장』은 아이들의 필독 도서로 언제나 상위권에 올라 있다. 이에 여러 판으로 각색되어 아이들 수준에 맞춰 다채로운 독서 활동을 계획할 수 있다. 특히, 고전이라는 편견을 뛰어넘는 얹디얹은 분량은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하기에 더없이 매력적이다. 게다가 역사 수업 시간에 뜬금없는 『동물 농장』이라니,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인다. 독서 수업의 성패를 가르는 순간을 꼽으라면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찰나라고 생각한다. 그 순간을 어떻게 지속시킬 것인가. 다소 과장된 몸짓으로 책장을 열면 여느 책과 달리 줄글이 아닌 알록달록한 그림으로 채워진 그래픽 노블이 등장한다. 이제 아이들은 활짝 미소를 짓는다. 『동물 농장』 그래픽 노블의 첫인상은 아이들에게 충분히 합격이다.

이 작품의 각 주인공은 20세기 소련의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다. 자신의 꿈 이야기를 통해 혁명을 호소하고 사흘 후 사망해 버리는 늙은 메이저 영감은 마르크스를, 헛간의 일곱 계명을 뜯어 고치며 인간인지 돼지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된 독재자 나폴레옹은 스탈린을, 풍차가 돌아가는 밝은 미래의 동물 농장을 구상하였으나 나폴레옹에게 내쫓긴 스노볼은 트로츠키를 상징한다.

동물 농장은 독재자 나폴레옹과 언변의 달인 스쿼터, 그리고 그들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보이는 충직한 복서의 모습을 통해 권력을 가진 지도자가 어떻게 일반 국민을 현혹하고 우롱하는지 보여 줌으로써 혁명이 독재로 변질되는 과정을 통렬히 풍자한다.

역사 수업 시간에 진행되는 독서 수업의 목적은 단순한 책 읽기가 아니라 아이들의 시각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 주는 것이다. 이때, 책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추상적인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토론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 준다. 그러므로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가장 마음에 든 동물 이야기로 아이들과 가볍게 책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것은 책을 읽었는지 확인하는 목적 이외에도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

복서는 다른 누구보다 아이들의 선택을 많이 받는 동물이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글을 읽지 못해 팔려 가는 것이 너무 불쌍하고, 그의 순진한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가 압도적이다. 학기 말, 생활기록부에 아이들의 행동 발달 사항을 기록하면서 자주 쓰는 단어는 누구보다 솔선수범하고 책임감 있는 학생이라는 칭찬이다. 문득, 복서의 모습이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생각에 씁쓸해졌다. 결국, 동물 농장의 상황은 오늘날에도 쭉 이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토론 주제는 각자 준비해 온 질문을 바탕으로 스스로 정한다. 아이들은 주어진 토론 주제보다 스스로 정한 토론 주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리고 다양한 토론 주제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생각의 폭이 넓어진다. 자신의 토론 주제가 선정되길 원하는 아이들의 표정은 사뭇 진지하다. 이번에 선정된 토론 주제는 ‘동물들은 왜 나폴레옹의 독재를 막지 못했을까?’이다. 아이들은 동물 농장의 동물들에게서 자신을 발견한다. 그리고 나라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고민한다. 역시 고전의 힘은 강력하다.

이제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비대면, 언택트 문화가 시민들의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에듀테크’와 ‘참여’가

교육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디지털 학습 환경에서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사용되는 맥락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디지털 문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디지털 시민성 교육이 필요하다.

‘스마트폰을 쥐고 태어난 세대’인 우리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 기기를 자유자재로 이용하는 디지털 네이티브이다. 자신이 관심 있는 영상을 찾아 ‘구독’하는 형태로 콘텐츠를 소비하고 ‘좋아요’ 버튼과 댓글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양방향 소통에 익숙하다. 또한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고, 관심이 비슷한 사람들과 커뮤니티를 조직하고 서로 연결을 거듭하면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사회에 참여한다. 이러한 아이들에게 필요한 역량은 우리 사회가 왜, 어떤 과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는지 살피고, 디지털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시민으로서 사회를 바라보는 안목이다.

매리언 울프는 『다시, 책으로』에서 읽는 행위를 통해 스스로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책임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그러한 과정은 민주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고전 읽기는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기르고 오늘날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길잡이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반세기가 훨씬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물 농장』은 ‘내가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내가 무엇을 느꼈는가.’에 대한 생각뿐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는 점에서 빛을 발한다.

권은재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역사 수업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 역사 교사.
 풍생고등학교 역사 교사이자 교수학습공학 박사이다.
 경기도중등역사교육연구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함께 읽기는 힘이 세다 2』, 『영화와 함께하는 세계사』를 함께 썼다.



**역사 교사가 전하는
『동물 농장』 독서 후 질문**

- ① 『동물 농장』의 동물들에게 리본은 어떤 의미일까?
- ② 동물들에게 풍차는 어떤 의미일까?
- ③ 동물들은 왜 농장에서 탈출하지 않는가?
- ④ 정신노동이 육체노동보다 우위에 있는가?
- ⑤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는가?
- ⑥ 오늘날 대한민국은 동물 농장과 다른가?
- ⑦ 사회 문제는 개인의 문제인가? 시스템의 문제인가?
- ⑧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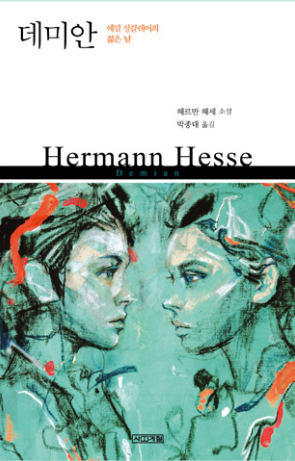
함께 읽으면 좋은 고전



1984
조지 오웰 원작 | 피도 네스티 지음 | 강동혁 옮김 | 염승숙 해설
#자유의지 #이중사고 #감시 #혁명

과거는 지워지고, 거짓이 진실이 되고, 미래는 상상할 수 없다.
조지 오웰이 예견한 미래 사회를 그래픽 노블로 새로이 만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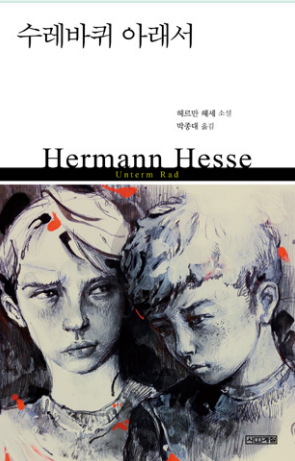
빅 브라더의 눈이 개인의 모든 생활을 낱낱이 감시하고 제한하는 극단적 전체주의 사회 오세 아니아. 정부가 과거사를 왜곡하고 미디어를 통제하는 견고한 체제 아래, 끝내 정신까지 지배 당한 사람들 사이에서 윈스턴은 저항을 시작하는데……. 과연 한 인간은 이 사회 속에서 자신의 인간성을 지킬 수 있을까?



데미안—에밀 싱클레어의 젊은 날
헤르만 헤세 소설 | 박종대 옮김
#내면 #성장통 #자아 #선과악

우리는 모두 ‘데미안’이라는 일기장을 가진 적이 있다!
헤르만 헤세가 들려주는 차갑고도 뜨거운 당신 이야기

‘성장소설의 바이블’로 불리며 전 세계 젊은이들의 통과 의례처럼 읽혀 온 명작. 싱클레어와 데미안의 만남을 통해, 한 인간이 자신을 둘러싼 알을 깨고 나와 성숙한 존재로 성장해 가는 지난하고 고독한 여정을 그렸다. 안전한 궤도의 삶과 스스로 생각하는 삶의 방식 사이에서 갈등하는 싱클레어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은 세계와 체제의 위선에 끊임없이 의심하고 저항하며 자아의 완성을 추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수레바퀴 아래서
헤르만 헤세 소설 | 박종대 옮김
#억압 #자기발견 #굴레 #성장

인생의 수레바퀴에 깔려 힘들어하는 이에게!
헤르만 헤세가 그려 낸 ‘한스 기벤라트’는 백 년이 지난 지금도 너무 많다.

헤르만 헤세의 초기 작품으로 『데미안』에서 보여 준 철학적 아포리즘과는 달리 작가 자신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낸 진솔한 일기 같은 작품. 19세기 말 독일의 교육 현실을 토대로 인간의 창의성과 자유로운 의지를 짓밟는 교육을 강하게 비판한다. 이 소설은 아이의 삶이라는 수레에 너무 많은 기대와 욕망을 투사하고 그 수레바퀴 아래에 깔리지 말고 남들보다 앞서 끌고 나가라고 등 떠미는 사회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를 담았다.

호호책방

청소년문학, 그 멋짐에 대하여



현직 국어 교사이자 열렬한 독자인

김영희, 윤재오, 조인혜 선생님이 청소년문학을

알리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청소년문학을 소개하고 이야기 나누는 호호책방!

매월 둘째 주, 넷째 주에 찾아옵니다.

청소년문학의 멋짐을 나누는 호호책방으로 놀러 오세요!



호호책방
『동물 농장』 편 보기

(그래픽 노블)

(ㅋㅋㅋㅋ)

(연기로 재탄생?)

호호책방 『동물 농장』
그래픽 노블로 재탄생!

동물 농장